

N수생 수능 강세 여전... 국어 13.3점·수학 12.8점 앞서

202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수학 상위권 격차 5년이래 최소
서울 국어·수학 평균 전국 최고
최하위 지역과 점수 10점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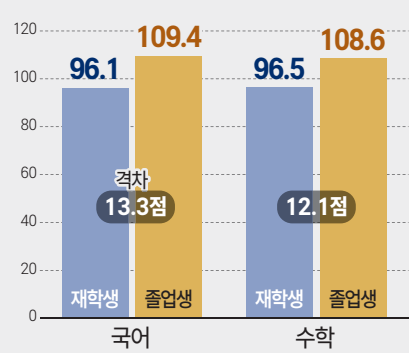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졸업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이 재학생보다 13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에서도 12점 넘는 격차가 벌어지는 등 졸업생이 국어·수학·영어 모든 영역의 상위등급 비율에서 재학생을 앞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은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평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국어·수학·영어 모든 영역에서 1·2등급 비율도 가장 높았다.

◆ 졸업생, 재학생보다 국어 +13.3점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전체 응시자는 49만3896명으로 전년도 46만3486명보다 3만410명 증가했다.

수능 표준점수 평균 비교

2026학년도 수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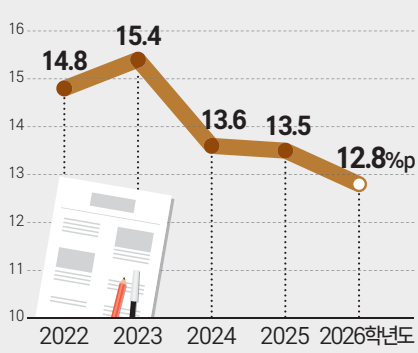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같은 기간 34.7%에서 32.6%로 2.1%포인트(p) 감소했지만, 성적에서는 재학생을 크게 앞섰다.

특히 국어에서 격차가 컸다.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졸업생이 109.4점으로 재학생(96.1점)보다 13.3점 높았다. 졸업생의 국어 1등급 비율은 8.0%, 2등급 비율은 10.9%로 1·2등급을 합하면 18.9%였다. 재학생은 각각 3.3%, 4.8%로 1·2등급 비

재학·졸업생 수학 격차

2026학년도 수능 2등급 이내 비율 격차, 단위: %p



율이 8.1%에 그쳤다.

수학에서도 졸업생 강세가 이어졌다. 졸업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재학생보다 12점 이상 높았다. 평가원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모두 졸업생이 가장 높았으며, 국어·수학뿐 아니라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도 졸업생의 1·2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대로 하위권인 8·9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가장 낮았다.

다만 졸업생과 재학생의 상위권 성적 격차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좁혀진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에서 2등급 이내 비율은 수석이 재학생 9.5%, 졸업생 22.3%로 12.8%p 차이가 났다. 이 격차는 2022학년도 14.8%p, 2023학년도 15.4%p, 2024학년도 13.6%p, 2025학년도 13.5%p에서 올해 12.8%p로 최근 5년 중 가장 작아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와 정시에서 수능 성적이 우수한 고3 학생들이 상당수 합격하면서 재수로 넘어오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 국어·수학 평균 전국 최고

지역별 성적 차이도 뚜렷했다.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재학생 성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102.4점, 수학은 102.3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모두 가장 높았다. 반면 국어 평균이 가장 낮은 경남은 91.7점으로 서울과 10.7점 차이가 났다. 수학에서는 강원이 92.1점으로 가장 낮아 서울과의 격차가

10.2점에 달했다.

상위등급에서도 서울의 강세가 나타났다. 서울의 국어 1등급 비율은 6.0%, 2등급은 7.7%로 1·2등급을 합해 13.7%였다. 국어뿐 아니라 수학과 영어에서도 서울의 1·2등급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높았고, 국어·수학·영어의 1·2등급 비율 역시 모두 사립학교가 높았다.

성별로는 영역에 따라 차이가 엇갈렸다.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여학생이 100.5점으로 남학생 99.5점보다 1점 높았지만, 수학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다. 1·2등급 비율은 국어와 수학에서 남학생이, 영어에서는 여학생이 높았다. 영어 1등급 비율은 남녀 모두 3.1%였지만 2등급 비율은 여학생이 14.5%로 남학생 14.2%보다 높았다.

/이현진 기자·김수정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청파동1가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

서울시, 25층·1280가구 조성

서울시는 용산구 청파동1가 97의35 일대 재개발 신통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대상지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로 관리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로 중층 주택이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의 비율) 250% 이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물레이션상 높이는 최고 25층 내외, 주택 규모는 약 1280가구다. 높이와 가구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 청파2구역과 공원·도로 연계

시는 지난해 4월 후보지를 선정할 때 포함했던 숙명여대 소유 필지를 제외하고 종교시설과 기존 도로를 포함해 불규칙한

구역계를 조정했다. 인접한 청파2구역 신축통합기획에서 계획한 공원과 연결되는 통합 공원을 만들고 대상지 남쪽에도 공원을 배치한다.

공원과 함께 차량 접근로도 주변 정비사업과 연결한다. 청파1·2구역이 계획한 도로와 대상지 진출입로를 잇고, 학교와 종교시설 사이 접근로를 연결한다. 주변도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넓힌다.

단지 중앙도로는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합 조성할 수 있는 입체 구조로 만든다. 차량 진출입구 2곳은 지형을 고려해 분산 배치한다.

◆ 숙명여대·청파초 잇는 보행망

보행로는 주변의 보도와 공공보행통로에 이어 숙명여대와 청파초, 숙대입구역까지 연결한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 약 40m에 이르는 높이 차를 고려해 보행로 경사를 완화하고 엘리베이터 등 수직 이동시설을 설치한다.

/이현진 기자

수시 원서접수 장애 구제 250건 잠정 가능

약 1200명 신청... 형평성 문제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 “무거운 책임감”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구제를 신청한 1200여명 가운데 잠정적으로 구제가 가능한 사례가 250여건으로 파악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오늘 오전 10시 기준) 1200명 정도가 구제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잠정적으로 구제 가능한 것이 한 250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번 원서접수 장애와 관련한 교육부의 책임도 인정했다. 최 장관은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발생과 대응 과정의 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차적인 책임은 원서접수 대행업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에 있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이 업무는 대학으로부터 대행을 맡은 회사와 대협 사이의 문제”라면서도 “이에 대해 감독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교육부의 책임이 없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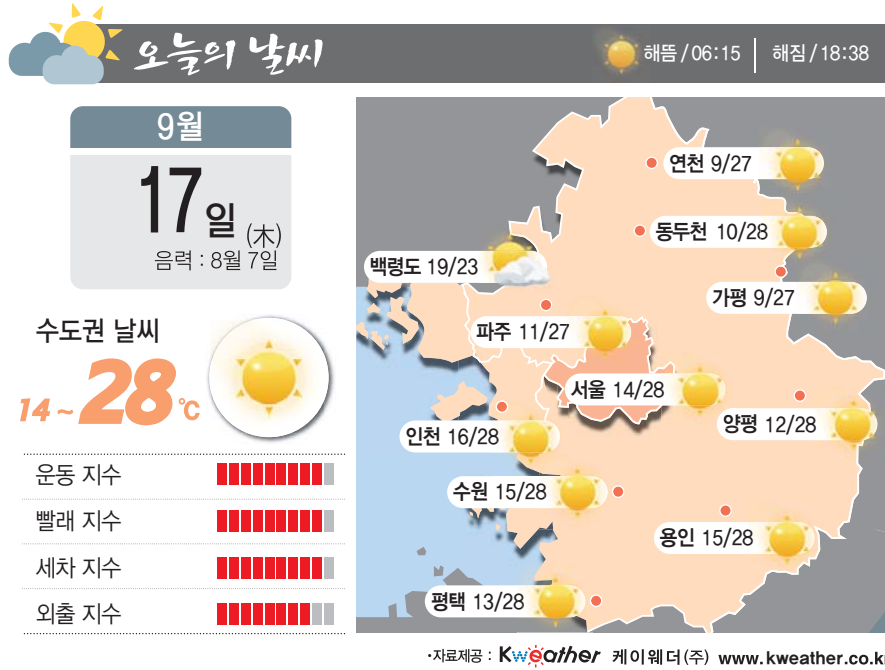
이어 “다만 이 일 자체의 장애 상황이나 대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업체나 대협, 대학에 있다”고 강조했다.

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된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연장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 의원이 “연장하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온 것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매뉴얼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조치를 했고 대협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그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매뉴얼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자체와 장애 이후 대응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쟁률이 공개된 뒤 이뤄진 접수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살펴보고 있다”며 추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GTX-C 양주 덕정~수원 구간 실착공

86.6km 규모... 총사업비 4.9조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양주 덕정역~수원역 구간이 15일 실착공에 들어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수원역에서 열린 'GTX-C노선 착공 홍보관 개관 행사'에 참석해 "GTX-C가 착기에 공사를 마치고 개통되면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약 25분, 양주에서 삼성역까지 약 30분이 소요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

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재가 이뤄져 실착공하게 됐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GTX-C노선은 2024년 1월 착공식 이후 총사업비 증액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 등을 거쳐 총사업비 조정 문제가 정리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역·삼성역·양재역 등을 거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까지 연결하는 86.6

km 규모로, 총사업비는 4조9272억원이다.

경기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도지사와 행정2부지사, 실무진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특히 추 지사는 지난 7월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 신규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시군과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인허가·보상 등 주요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 지원을 통해 GTX-C노선의 적기 개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메트로 한줄뉴스



▲감사원 “尹, ‘대왕고래’ 시추 임기내 단축 지시...액트지오 선정절차 부당”
▲외국인 난재 사망 5년 새 369명...“81%가 건설·제조업”
/사진 뉴시스

▲‘가족 조합’ 김승원·‘12억 관사’ 추미애, 경찰 수사 본격화
▲아들 불법촬영 알자 휴대폰 파손한 현직 경찰, 정직 처분

▲“매출 580조인데 과징금 11조”...경실련, 소비자 집단소송법 촉구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연간 54.8조...GDP 2.14% 달해